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동계 단기 어학연수 (영국 셰필드 대학교)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4.1.8 ~ 2024.2.2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2023.10.13 [2023 동계 영어권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장학팀 공지에 올라왔으며, 10월 24일 최종 합격자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6일 1차 합격자 교육이 있기에 여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여권 재발급 신청 후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해 1차 합격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1차 합격자 교육에서는 셰필드 대학교에 대한 정보와 출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 함께 출국할 조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출국은 조원끼리 해야 함, 항공은 개인이 예매해야 함, 픽업 서비스는 프로그램 시작 이틀 전쯤 할 예정) 같은 학과 친구들끼리 신청했기 때문에 세 명이서 조가 편성되어 셋이 상의를 통해 출국과 입국 날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 편성이 끝나고 2-30분간 조원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에 셰필드 단기 어학연수가 2024년 1월 8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0일에 출국해 파리에 들렀다가 런던을 여행하고 1월 7일에 셰필드 기숙사에 가기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합격자 교육은 10월 31일 이루어졌습니다. 셰필드에서 나오신 관리자 선생님께서 셰필드 생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자 발급, 여행자 보험 등과 관련된 파견 절차와 셰필드 대학 ELTC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행자 보험은 개인이 들면 되고 학생 비자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양식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했습니다. 또한 학점 인정을 위해 셰필드 대학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출석 80% 이상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됨.)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셰필드 대학교 지원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간단한 사항들을 적는 거라 어렵지 않았고, 장학금 수령 서류는 신한은행 학생증을 만들어 사본을 제출하고, 보험 가입 확인서, 여권 사본, 왕복 항공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1월 15일 프로그램비와 기숙사비를 납부하였고, 장학금은 한 달 후인 12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셰필드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은 해외에서 사용할 카드 발급하고, 환전 신청하기, 번압기 구매, 파리와 런던 숙소 예약과 여행 계획 세우기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파리, 영국에서 필요한 유심, e-유심을 구매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여권 사본, 항공권, 셰필드 대학교에 제출할 조선대학교 재학 증명서 영문본을 인쇄해 준비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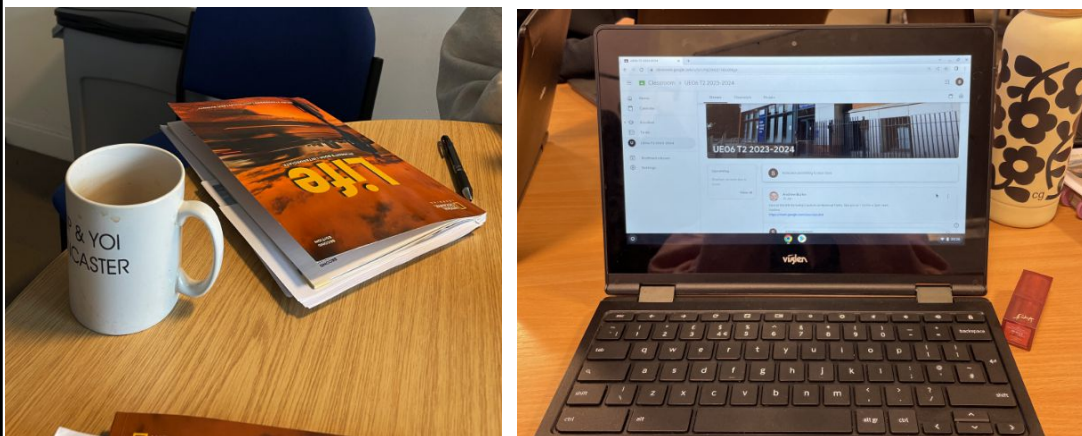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 셰필드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첫날 다이아몬드 빌딩에서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는데, listening test를 본 뒤 reading test를 보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 University English Course Introduction을 짧게 듣고 셰필드 학생회관 건물로 넘어가 셰필드 학생증을 만들고, ELTC 수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홀에서 본 level test, 학생회관에서 학생증 만들기)

- 수업 시간은 오전 9시 30분 ~ 11시까지 1교시, 11시 30분 ~ 1시까지 2교시, 2시 ~ 3시 30분까지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수업은 담당 선생님과 주로 내셔널지오그래픽 교재를 이용해 문화, 기술, 문학 등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 공부, 문법 공부, 듣기, 쓰기, 토론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수업 도중 나왔던 기억할 만한 단어들, 처음 들어본 단어들,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어려운 단어들을 칠판 한 쪽에 적어 Vocab list를 만들어 다음 주 월요일 그 단어들과 관련된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사용하지 않는 수업도 종종 있었는데, 영어 신문을 보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을 요약하는 시간,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시고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적는 글쓰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크닉 데이를 통해 한국,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의 음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사용하는 책, 글쓰기 시간에 제공되는 노트북, 피크닉 데이)

- 2주 차부터는 3교시 수업에서 옵션 클래스를 듣게 되는데 (발음 향상을 위한 Speaking and pronounciation 수업, 비즈니스 관련 용어들을 배우는 회화 수업,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국 영어에 대해 알 수 있는 Social English 수업, ielts 시험 준비 수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는 소셜 스피킹 수업을 들었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어휘나 세 필드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 문화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 음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던 수업 마지막에는 영국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음식점을 낼 것인지 상의해 보고 포스터를 만들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옵션 클래스에서 만든 포스터)

- 수요일 3교시 수업은 1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영국의 문화, 역사, 음식, 여행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 2교시 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3교시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끝날 때에는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들)

- ELTC social program에는 여러 활동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활동에 등록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셰필드 대학의 welfare team에서 메일이 오는데, 매주 운영하는 소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 메일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면 요가, 스쿼시, 축구, 실내 사이클링, 네일아트, 그림 그리기, 피트니스 등 오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소셜 프로그램을 들으며 친분도 쌓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며 셰필드에서의 한 달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소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수업 중간에 있는 30분 쉬는 시간,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에 0층에 있는 오아시스 카페에 내려가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빵, 샌드위치, 커피, 컵라면, 샐러드 등을 팔기 때문에 기숙사가 멀다면 점심을 이곳에서 사 먹거나 싸와서 먹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카페)

- 한 달에 한 번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체험 활동을 나가는데, 제가 간 곳은 맨체스터 축구 박물관이었습니다. 9시까지 모여 버스를 타고 맨체스터로 출발해 축구 박물관을 구경하고, 개

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뒤 박물관에 다시 모여 셰필드에 도착합니다. 정기 체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요크에 있는 조각 공원, 링컨 체험 활동 등 많은 체험 활동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달 체험 활동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도 있어서 쇼핑이나 맛집 체험도 가능해서 편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맨체스터 풋볼 뮤지엄 체험 활동, 맨체스터 카페)

3. 참가 성과

참가 후 성과를 꼽자면 영어실력 향상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학교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우크라이나인, 터키인 등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업에서 영국 문화, 역사, 여행지, 지형, 날씨 등에 대한 지식들을 듣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자신의 나라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교류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 그 나라의 문화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토론을 하는 날이 많았고, 각 나라의 이야기를 교류하는 날이 많았는데 가벼운 날씨 이야기에서 서로의 역사 이야기, 무거운 정치 이야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던 어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또한 늘게 되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영어로 내뱉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수업을 듣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문장들을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토론을 하면 옆에서 선생님께서 지켜보며 내가 쓰는 언어와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아닐 때 바로 캐치하고 고쳐주시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때니?”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신기하고 의아한 문화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 당연시하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며 깨뜨릴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며 그 지역만의 고유한 음식을 맛보거나, 가장 유명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영국 곳곳을 여행하는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각 지역을 여행할 때 한국인이 많이 없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고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에 의존해 영어를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로 많이 말하다 보니 어려운 주제가 아니면 영어로 스몰토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스스로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합계	8,180,995	+ 장학금 200만원
프로그램 비용	3,864,573원	교육비, 기숙사비, 문화체험비, 공항 픽업 1회 포함
항공료	왕복 1,697,325원	에어차이나, 터키항공 이용
보험료	43,871원	트래블러버 이용
숙박비용	405,539원 (1,216,618 / 3명)	681,989원 파리 4박 5일 3명 534,629원 런던 3박 4일 3명
식비	셰필드 식비: 524,875원 여행 식비: 파리, 런던 287,300원 요크, 에든버러 100,782원	셰필드 식비: 마트, 외식 여행 식비: 외식, 간식
개인 경비	통신비: 중국 6,500원 파리 16,600원 영국 44,900원 여행비용: 파리, 런던, 요크, 에든버러 974,376원 선물, 기념품 비용 : 214,354원	여행비용: 교통비, 입장료, 투어비용 등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이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고 실수도 많지만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을 보고, 누군가와 소통할 때는 언어라는 도구 하나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와 눈빛으로 소통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뿐만 아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한층 더 성장해가는 어학연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영어는 글로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계속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빨리 늘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영어는 입시와 토익을 위해 하는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였습니다.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실제로 외국인들과 말하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우는 공부가 아닌 공부가 아닌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회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나중에 꼭 도전해 보고 싶었던 해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는 꿈에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원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여러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깊이 생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 상황 등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성장한 것 같아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취업에 가까워진 4학년이다 보니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익, 토익 스피킹과 같은 자격증 시험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업에 관련된 공부 외에도 회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 스피킹 학원에 등록해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2) 진로계획: 졸업 후에는 국내에서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몇 년이 지나 경력과 실력을 쌓고 나서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나가 간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어 해외 간호사라는 진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한국과 달리 영국은 물가가 꽤 비쌌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여행하고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충분히 돈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가야 해서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트램라인이라는 앱을 깔고 한 달 할인권을 끊어 이용하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실 거라면 뮤지엄 패스와 같이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패스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짐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 많이 채워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국할 때 캐리어 두 개를 짊 채워갔는데,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많이 사니 캐리어에 공간이 없어 개인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가볍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항공권이나 여행지 숙소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 놓는 것이 좋으며, 숙소는 여행지 중심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파리 여행을 할 때 숙소가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할 때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숙소 예약 시 지도를 보고 여행할 때 가는 곳과 숙소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며 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국 기숙사에서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를 켜 놓고 하루 정도 지나야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또 공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가습기를 챙겨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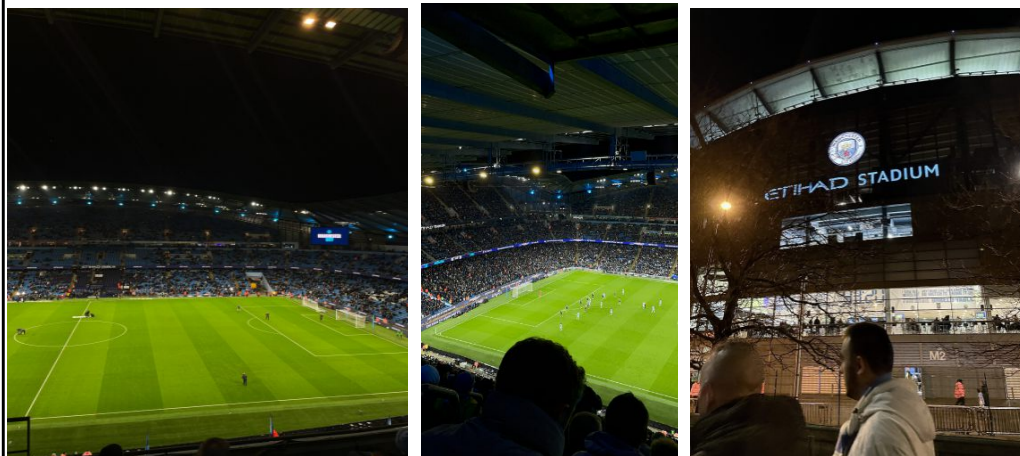
- 학교를 다닐 때는 돈을 아끼기 위해 기숙사에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의 여러 대형 마트를 돌아다녀 보고 가장 싼 곳을 가거나, 클럽 카드를 만들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첫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장을 7-8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사 먹으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와 기숙사가 가깝다면 점심시간에 기숙사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게 좋습니다.

- 영국에서는 샤워할 때 나오는 물이 석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터 샤워기를 꼭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터 샤워기를 챙겨가지 않아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가 다 엉킬 정도로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기숙사가 신축이라 여행할 때 지냈던 숙소들보다는 물이 깨끗한 것 같았습니다.

- 한식을 요리해 먹고 싶을 때는 시내에 있는 Panda Store에 가면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부터 여러 라면들, 쌀 등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중국 마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재료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식재료는 Tesco Express에서 사면 좋고, 클럽 카드를 꼭 만들어 할인받으세요!!

- 런던에 간다면 뮤지컬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페라의 유령이나 레미제라블, 겨울왕국 등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오페라의 유령 하나만 보고 온 게 정말 후회됩니다 ㅜㅜ 꼭,, 꼭 보세요... 런던아이, 빅벤, 버킹엄 궁전 등 너무 구경할 것이 많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근위병 교대식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맞춰 일정을 잡으신다면 멋진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런던 브릿지 위에서 타워 브릿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보는 타워 브릿지는 어디서 봐도 예쁘니 꼭 저녁에 가세요!!

- 셰필드뿐만 아니라 요크, 맨체스터, 에든버러 등 근처에 여행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맨체스터에는 축구를 보러 갔는데 멀리서 봐도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워 보이고, 정말 잘 보입니다. 현장에서 함성 소리를 들으며 축구를 보니 축구에 관심이 없던 저도 축구가 좋아질 정도로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니다.



에티아드 경기장

- 요크는 당일치기로 다녀와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게들이 다 닫기 때문에 오전에 가서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예쁘고 초콜릿이 맛있어서 선물로 요크 초콜릿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해리 포터의 다이애건 앨리 거리가 있어서 한 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크 민스터 성당은 웅장하고 예쁘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크 밤 경치



요크 초콜릿



다이애건앨리

- 에든버러는 정말 볼 것이 많아서 2박 3일을 여행했습니다. 금요일이 오전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을 빠지고 금토일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든버러 성은 높아서 에든버러가 한눈에 보이고, 1시에 대포를 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복제 양 돌리도 있고, 공룡 뼈가 있어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칼턴 힐은 에든버러의 전경을 막힘없이 감상할 수 있는 낮은 언덕이라 꼭 추천드리고, 아서스 시트라는 산은 갔다 온 사람들 모두 너무 좋다고 했던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갔으니 술을 좋아하신다면 위스키 투어도 한 번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조니워커 위스키 투어를 갔는데 혹시 여러 브랜드의 위스키를 마시고 싶다면 에든버러 성 근처의 위스키 투어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콧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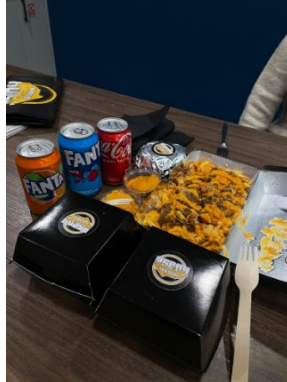


칼턴 힐



에든버러 성

- 기숙사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인 할렘 하우스에 꼭 가보셔야 해요.. 정말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십니다. 스위트 할렘이라는 메뉴를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셰필드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 한 달이 정말 뜻깊을 것 같습니다.

8. 기타사항

기숙사가 매우 청결하고 학교와 가까웠습니다. 기숙사 일층에 당구장, 영화관,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대형 마트가 있고, 학교까지도 2분이면 걸어갔습니다. 시내까지는 트램을 이용해 10분 정도 걸렸으며 근처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



기숙사 근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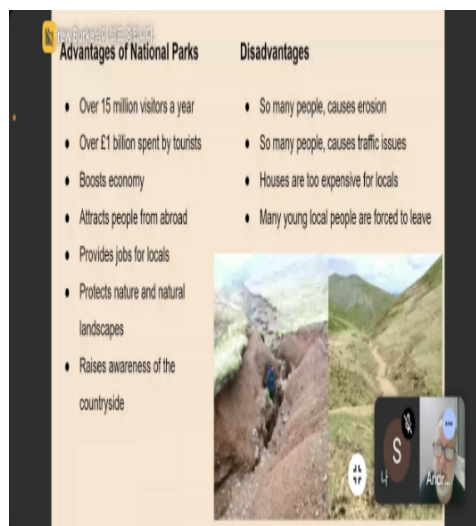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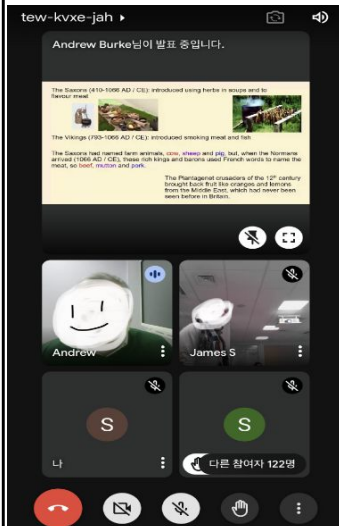
기숙사 1층 시네마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ELTC 반 마지막 날 단체 사진



수요일 온라인 강의 사진



맨체스터 축구 박물관 체험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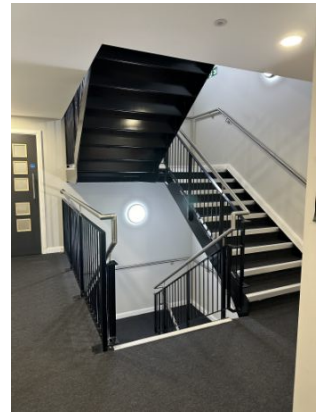
ELTC 수업 사진



피크닉 데이 사진



기숙사 사진



기숙사 근처 공원 사진



세필드 학생회관 근처 펍 [The University Arm]



런던 타워브릿지, 버로우마켓, 오페라의 유령





파리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